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미국 페르미연구소 부소장 초청 강연회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2006년 11월 15일 미국 페르미국립가속기연구소의 김영기 부소장을 초빙하여 『소립자와 우주세계의 만남』을 주제로 5층 대강당에서 직원 대상 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강연은 소립자와 우주 그리고 페르미국립가속기연구소의 CDF(Collider Detector at Fermilab, 양성자·반양성자 충돌실험그룹) 연구단의 활동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김 부소장은 “세상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알맹이는 소립자이며 중력, 전자기력, 약력, 강력에 의하여 소립자들이 결합하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만들어 진다.”고 설명하였으며, “현재 가동하는 최고 성능의 가속기는 페르미 국립가속기연구소에 설치되어 있는 테바트론(Tevatron)이며, 본 연구소의 CDF 연구단에는 전 세계 약 2,000명의 과학도들이 소속되



어 소립자를 연구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한편, 김영기 부소장은 고려대학교에서 물리학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美 로체스터대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교수를 거쳐 현재 시카고대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4년에는 페르미국립가속기연구소 CDF의 공동 대표를 역임한데 이어 금년 7월부터는 본 연구소의 부소장으로 취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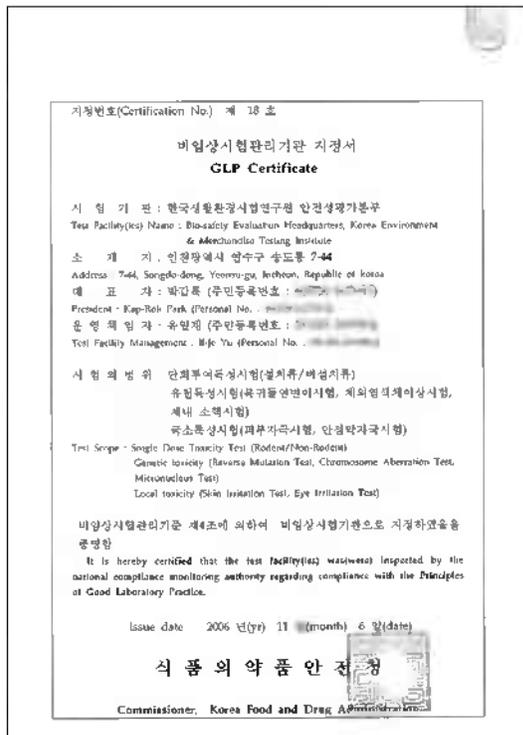
또한, 美 과학전문지 『Discover』 2000년 10월호에 ‘향후 20년간 세계과학 발전을 주도할 20명의 과학자’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학계에서는 노벨상에 가장 근접한 한국인 과학자 중 한 명으로 평가 받고 있다.



- ※ 페르미국립가속기연구소
(Fermi National Accelerator Laboratory)
- 미국 일리노이주(州) 시카고에 위치한 국립가속기연구소
- 설립년도 : 1967. 11. 21

- 주요활동 : 테바트론 가속기 운용, 희스입자 탐색, 초대칭이론 및 대통일장이론 모형 연구 등
- 규모 : 참여 과학자 약 5,000명 (소속 약 2,000명) 연간 예산 약 3,000억원 **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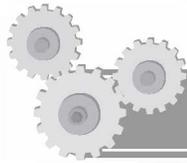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청 GLP기관 지정



한국 생물환경시험연구원 (원장 박갑록)은 2006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비임상시험관리기관 (GLP)」으로 지정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임상시험관리 기준」에 의거하여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시험 전 과정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임상 시험기관(GLP)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GLP 기관지정으로 연구원은 단회투여독성시험(설치류, 비설치류), 유전독성시험(복귀돌연변이시험, 체외염색체이상시험, 체내소핵시험), 국소독성시험(피부자극시험, 안점막자극시험) 등의 GLP 업무를 수행하게 있게 되었으며, 이는 안전한 의료기기 개발 및 공급에 일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승관원,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증식 가져



사진은 2006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인증식에 참석한 김재우 기술이사(좌측 첫번째), 엄용기 기술안전본부장(가운데)·윤안섭 과장이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승강기 법정검사와 안전진단, 조사연구, 교육, 홍보, 종합정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원장 유대운·이하 승관원)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선정하는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뽑혔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06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에 처음으로 선정된 승관원은 지난 11월 29일(수)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제10회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서 수여식 및 유공자 포상'에 참석해 산업자원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은 ▶품질혁신 시스템▶제품 개발 및 기술력▶경영 실적 등 13개 분야를 평가해 뽑게 되며, 응모기업을 상대로 서류심사와 업계, 학계, 연구소 및 품질 관련 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현장 실사를 거쳐 선정한다.

한편, 이번 수여식에서 승관원이 우수기업 선정된 것은 고객에 대한 검사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관리 노력, 고객만족경영활동과 검사장비의 유지관리(TPM), 소집단 개선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많은 성과를 낸 것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표준**





승관원 · 서울교육청 공동 승강기 안전교육 실시

14일, 공정택 교육감, 녹색어머니회 등 참석해 안전대책 등 논의

승강기 이용자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중 13세 미만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42.9%('93. 1.1~'06. 6.31 기준)를 차지하는 가운데,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승강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승관원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월 14일(화) 오전 11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공정택 교육감과 유대운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화계초등학교(강북구 미아동)에서 2천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도 가졌다.

이번 '초등학생을 위한 승강기 안전교육 및 간담회'는 승관원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후원한

행사로, 어린이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 강북구 소재 교장(12명), 화계초교 운영위원, 녹색어머니회 등 학부모 단체회원들이 참석했다.

한편, 승관원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지난 9월부터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에 완료할 방침이다.

※ 승강기 안전교육 실시현황 : 총 41개 학교 41,157명 교육('06. 11.10일 기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뒷줄 좌측 네번째)과 승관원 유대운 원장(뒷줄 좌측 두번째)이 화계초등학교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대운 원장이 아이들에게 승강기 안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